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29일 화요일 음 5월 20일 (12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대체로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C, 낮 최고기온은 27~28°C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cloud cover percentage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rise and moonset times, and day/night lengths.

식중독지수 and 자외선지수 경고, 매우 높음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주간예보) for the region.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미세먼지) for PM10 and PM2.5.

월드뉴스

일부다처제 남아공... 일처다부제까지?

법제화 두고 찬성-반대 갈등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일처다부제 법제화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일하는 남아공 남성들.

찬성하는 측은 이미 일부다처제를 허용한 만큼 성평등 차원에서 일처다부제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 헌법을 가진 곳 중 하나로, 동성결혼은 물론 일부다처제 역시 수용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BBC 방송은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정부가 일처다부제를 합법화하는 정책 제안을 내놓은 뒤 보수 진영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아공 정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정부 견해를 담아 발표하는 문서인 녹색(Blue Paper)을 통해 일처다부제 법제화 추진 입장을 밝혔다.

남아공 정부는 이번 문서에 일처다부제뿐만 아니라 무슬림과 힌두교도, 유대교도, 라스타파리아니즘 결혼 역시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한라칼럼



김윤우 무릉외갓집

"kg당 6900원."

환율이 곱에 마늘과 죽을 쥐 인간이 되게 한 단군조선 이래 가장 높은 마늘가격이다.

지난 23일 경남 남해 모농협 공판장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운 피마늘 경매가격이 그것인데 kg당 7000원에 가깝다.

지리산해까지만 해도 산지폐기니 시장 격리니 하며 우리 속을 무던히도 애

마늘값... 단군조선 이래 최고가 갱신

태우던 마늘이 새로운 기록을 갈아 치우며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우선은 외국산 수입의 빌미를 줄 수가 있다.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물가당국 입장에서는 장바구니 물가에 공을 들이게 될 것이고 그 타깃은 마늘이 돼 물가안정을 위해 외국산 수입량을 대폭 늘려야 할런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마늘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이래 최고가격을 갱신하고 있는 마늘은 양배추 등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분명 관심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앞서 열거했던 산지폐기 및 시장격리 등 가슴 쓰라린 일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해왔듯이 마늘은 작황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심하다. 산지가격이 생각 이상으로 오르는 것도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형성되는 것 또한 참기 힘든 고통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이 완료됐고 이 단체에 가입을 희망한 농가들로부터 자조금을 수납하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 자조금은 생산농가, 농업경영체, 농업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재원으로 삼아 설치하는 제도도 정부도 농산업자들이 거출한 금액만큼 사업비를 보탠다.

늘의 수입안정과 마늘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마늘 수입안정으로 그간 정부에서 주관해오던 수입농산물관리 권한이 자조금 단체에게도 주어진다

마늘농사가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마늘을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요 이상으로 마늘을 수입하므로 해서 생기는 수입불균형이 마늘가격 폭락을 불러 오는 것이다.

부디 이 자조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늘재배로 마늘이 명실공히 월동채소류의 균형추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열린마당

우리의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한경훈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클린하우스에서 간혹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구나 TV 등 대형폐기물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배출된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단돈 몇 천원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불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몇 천원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불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맞춤형 체납 관리 시스템 '제주 체납관리단'



이수연 서귀포시 세무과

현재 지방세법은 고액 체납자(법인 등)에 대해 5000만원 이상 출국 금지, 1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 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가 취해진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 체납자가 A 지자체 300만원 B지자체 499만원 체납 분산돼 있으면 현재 지방세법은 체납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나 동일 지자체 체납이 안돼 행정제재를 취할 수 없었다.

이제는, 동일 체납자가 전국 지자체에 분산 체납 돼 있어도 지방세 조항이 전국의 통합적인 조제 행정 주체가 돼 행정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 주인공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죽음과

맞춤형 체납 관리 시스템 '제주 체납관리단'

세금 말고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는 더 이상 뒤로 물러 설 곳이 없을 만큼 힘들어 졌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원재료 상승으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정갈 힘든 시기 입에는 틀림없다.

지방세 조항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고강도 체납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는 일반인은 생소하겠지만 일찌감치 코로나 시대를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고강도 행정제재와 복지연계를 병행한 성공적 맞춤형 체납관리시스템인 '제주 체납관리단'을 가동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제주는 맞춤형 체납관리시스템인 '제주 체납관리단' 시스템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널리 알려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All Fruit' (모든품종) featuring various citrus fruits like mandarin, grapefruit, and lemons.

Advertisement for 'Gomgol Myok' (감골묘목) featuring Asahi 4 and 5-year-old citrus saplings.

Advertisement for 'New Product' (신품종) featuring high-quality domestic citrus products.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티엔정보기술(주)) offering IT solutions and services.